

티디. 티디. 티디.

소리를 내서 읽다보면 어딘가 친근한 느낌이 든다. 라이터에 불을 붙일 때, 꼭 이런 타는 듯한 소리가 나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티디를 풀어서 부르자 면—트웬티스 드림이라고—어딘가 장엄한 느낌까지 들고만다. 트웬티스 드림. 이십대의 꿈. 대학에 와서, 새내기 때만 들 수 있다는 밴드부를 찾아 가서, 문을 두드려 악기를 배우고, 문화제에 공연을 올리기 위해 날밤을 새우는 일은 아마 이십대이기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트웬티스 드림. 티디. 티디는 이십대가 가진 날것의 꿈이다. 그 꿈을 이끌어갈 사람을 고르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 전에는, 그 전전에는 또 어땠는지 모를 일이지만—아마도 늘 그래왔겠지.

그 해의 회장은 은서였다. 셋 중 하나가 회장이 되리란 건 처음부터 정해진 일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흘러갔다. 리더를 정하는 방식은 언제나 조금 모호했고,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결정되는 일이 많았다. ‘잘하니까’, ‘이전부터 해왔으니까’, ‘딱히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그럴듯한 이유들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녔다.

어느 날 부터인가 회장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조금씩 분위기도 달라졌다. 공연 섭외나 합주 일정이 예전보다 빠듯해졌고, 작은 실수에도 피드백이 더 날카로워졌다. 누구도 잘못을 말로 꺼낸 적은 없지만, 조율되지 않은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티디의 무드는 여전히 명랑한 편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무너지거나 어긋나는 구석은 없었다. 하지만 회장이라는 자리가 은서 한 사람에게만 어색하고 버거웠던 건 아니었다. “말을 해도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았다.”는 말이 마음 속 어딘가에 맺혀 있었다는 듯, 모두가 조심스러워졌다.

공연을 앞두고 몇 번의 회의가 이어졌다. 어떤 곡을 할지, 누가 메인을 잡을지, 어떻게 세트리스트를 구성할지—그 모두가 예전처럼 편하게 말해지지 않았다. 농담 사이에 낀 진심이 어느 쪽도 편하게 만들지 못했고, 괜히 말수를 줄이게 되는 날이 잣았다. 마치 누군가 연습실 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둔 것처럼, 기류는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말하자면, 이것은 갈등이라기보다는 침묵에 가까웠다. 확실한 다툼도 없었고, 감정이 폭발한 적도 없었다. 그저 어딘가에서 쓱 하고 금이 갔는데, 누구도 정확히 그 시작점을 짚지 못했다. 어떤 날은 그저 일이 많아서 그랬겠지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습이 끝난 저녁이면, 각자의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조용히 가방을 정리하는 일이 많아졌다. 피드백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면서, 말들이 한결 조심스러워졌다. 말을 아끼는 사람과, 말을 조율하는 사람과,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하나가 옳았다고보단, 모두가 지치고 조심스러웠다.



그럴수록 연습은 더 '잘' 돌아갔다. 정해진 시간에 모이고, 정해진 곡을 맞추고, 정해진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누구 하나 지각하지 않았고, 실수가 있어도 금방 복구되었다. 외부에서 본 티디는 더 단단하고 매끄러워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안쪽 어딘가에서는, 예전처럼 웃다 놓친 박자에 셋이 동시에 고개를 드는 장면이 더는 나오지 않았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정공 연습을 마친 어느 날, 그날따라 연습실 안의 조명이 유난히 노랗게 보였다. 짐을 정리하던 누군가가 기타를 내려놓고 문을 나서자, 남은 두 사람도 말없이 따라 나갔다. 셋은 함께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어 보였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있었다. 누가 먼저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었고, 누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조용한 마무리였다.

그날이 어떤 특정한 끝은 아니었다. 티디는 여전히 공연을 준비했고, 곡을 맞췄으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완벽하게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그래도 누구도 떠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다. 어딘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에는 오히려 기적처럼 느껴졌다.

트웬티스 드림. 이십대의 꿈이란 이름이 붙은 팀에서, 모두가 같은 꿈을 꿨던 건 아니었다. 그러니 불협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이 꿈의 형태를 바꿨을지언정, 꿈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불편한 침묵을 견디는 법을 우리는 조금씩 배워갔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방식, 괜찮다는 듯 조용히 맞춰주는 방식, 때로는 단순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건네지는 위로. 그렇게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멀어졌던 거리만큼의 조심스러움을 담아 다시 한 박자씩 호흡을 맞췄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같은 무대 위에 설 수 있었던 건 분명한 회복이었다. 그걸 누군가는 타협이라 했고, 누군가는 성장이라 불렀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여전히 티디였다.

하지만 그게 영원한 평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밴드부의 일상은 바쁘다. 아니, 어쩌면 밴드 그 자체가 애초부터 바쁜 걸지도 모르겠다. 건반 위를 쉼없이 구르는 손가락, 다음 목표물을 찾아 떠나는 드럼 스틱, 굳은살이 조금이라도 말랑해질 틈을 주지 않는 베이스 가닥, 고막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일렉 소리, 그리고 화음의 빈 곳을 찾아 채워주는 보컬까지.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을 시기에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감정의 골을 딛고 서로간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이었지만 매사 예민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태뮤페. 그 무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허설은 정신없이 흘렀다. 누구는 리허설 시간에 맞춰 겨우 도착했고, 누구는 장비가 제대로 세팅되지 않았다면 짜증을 내기도 했다. 전보다 좋아진 게 있다면, 그런 말투에도 누가 날 서게 받아치진 않았다는 거였다. 참는 건지, 지나친 건지, 애써 무시한 건지는 모르겠다. 우리 안엔 여전히 불편한 공기가 떠 있었고, 특정한 주제를 피하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적어도 그날의 무대에선, 누구도 등을 돌리진 않았다.

이번 무대는 이상하게 부담스러웠다. 예전엔 그저 해보고 싶어서 한 무대였지만, 두 번째는 그 마음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번에 잘했다면 이번엔 더 잘해야 했고, 실수가 있었다면 반드시 만회해야 했다. 그런식의 '조금 더'는 피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무대 뒤에 모여 짧게 웃으며 "이번엔 괜찮겠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 같이 그 말이 진심이기를 바랐다.

연주는 전보다 더 나았다. 눈에 띄는 실수는 있었지만, 누구 하나 흐름을 놓진 않았다. 눈빛 하나에 다음 박자를 읽었고, 엉갈릴 뻔한 코드에도 서로를 따라갔다. 무대가 끝나고 내려오며 무거운 숨을 내쉬었지만, 그 숨엔 묘한 후련함이 섞여 있었다. 조명이 꺼지고, 짐을 챙겨 나오면서 누군가는 캔 음료를 건넸고, 누군가는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며 등을 툭 쳤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날의 무대를 함께 만들었다.

정공 준비는 그다음이었다. 의외로 순조로웠다. 곡을 고르고, 순서를 정하고, 소소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었다. 간혹 연습에 늦는 사람이 있었고, 장비를 두고 서로 의견이 엉갈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누군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전환했다. 완벽한 화음은 아니었지만, 불협이 곧 깨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하나의 리듬을 타고 있었다.



정공 당일, 세팅은 여전히 정신없었고 리허설은 아슬아슬했다. 누군가는 줄을 다 맞추지 못한 채 무대에 올라야 했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음향팀과 의견을 조율하느라 식은땀을 흘렸다. 그러나 막상 조명이 켜지고 첫 박자가 울리자, 모든 걱정은 잊혔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손이 먼저 움직였다.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은 눈이 시릴 만큼 강했고, 가까이 닿은 앰프에서는 피드백 소리가 퍼졌다. 드럼은 날카롭게 공간을 밀어냈고, 기타는 튀듯이 치고 들어왔으며, 보컬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천장을 흔들었다. 서로의 박자에 딱 맞게 반응한 순간,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실수도 있었지만, 다들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실수 위로 또 다른 리프가 얹혔다.

우리가 연주하는 게 아니라, 무대 자체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 그렇
게 우리는 정확히, 지금 여기에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동방으로 돌아왔다. 조용히 정리나 하자며 들어간
방은 곧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피자 박스가 쌓이고, 종이컵을 든 손이 공중
에서 부딪쳤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악기를 다시 집어 들었고, 연습 때
몇 번씩 틀렸던 리프를 장난처럼 훌려보냈다. 박자가 어긋나도, 가사가 엉
켜도, 누군가는 손뼉을 치고, 누군가는 탁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춤을 춰다. 앰프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줄이 닳아버린 기타는 다시 비트를 탄다. 어느새 동방
안에는 노래가, 박수가, 웃음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누구
보다 확실하게 '함께'였다. 누군가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면, 분명히 흔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만큼 선명한 장면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추억이 단지 기억 속에만 머물지는 않았다. 기다란 네모 모양의 방, 발 디딜 곳 없이 어질더분한 바닥, 앞뒤를 구분하지 않고 놓인 악기의 틈에 우리는 화음만이 아니라 추억도 함께 쌓았다. 동방 구석에 놓인 소파에도 웃긴 에피소드가 있고, 방음을 위해 시공된 우둘투둘한 벽면에도 잊지 못할 순간이 있다. 각기 다른 꿈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트웬티스 드림'인 만큼, 모두가 의미 있게 기억하는 물건도 다르다.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동방에 놓여 있던 그 검은색 스피커를 떠올릴 것이다. 낡은 외형에 비해 한 번쯤은 꼭 써보고 싶은 장비였다. 특정 인물이 선점하고 있는 듯한 느낌에 괜히 눈치도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웬지 안심이 되곤 했다.

어떤 날은 그 스피커가 켜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습이 잘 될 것 같은 기분
이 들었고, 또 어떤 날은 스피커를 정리하면서 공연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우리가 그 기계를 좋아한 이유는 어쩌면 장비라서가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나눴던 기억들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동방 한쪽 구석, 기타들과 엠프 사이에 놓여 있던 의자
한 개가 오래 남는다. 유독 한 사람만 주로 앉던 자리였는데, 항상 그 자리
에 있던 사람과 그 위에 던져 놓인 가방, 그날그날 바뀌던 표정이 아직도 선
명하다. 아무 말 없이도 알아챌 수 있었던 분위기. 그 의자가 비어 있으면
무언가 빠진 것 같고, 반대로 평소보다 일찍 채워져 있으면 모두가 조금 긴
장했던 것 같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살피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엔, 장비보다도 더 소중했던 물건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자판기 커피, 새로 산 피크, 공연에서 받은 이름 없는 박수. 하나하나는 너무 사소해서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졌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건 늘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그 사소한 것들은 결국 우리만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 시절 동방은 단순한 연습 공간이 아니었다.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 혹은 더 잘 모른 척하기 위해 들락날락했던 공간. 마음이 맞지 않아도 동방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때로는 그 열림이 우리 사이의 여지를 만들어줬다. 다시 친해지자는 말이 오가지 않아도, 같이 자리를 지키는 일 자체가 작은 화해가 되곤 했다. 누군가가 피자를 사오고, 누군가는 그걸 보며 “요즘 무슨 일 있어?”라며 농담을 걸었을 때, 그건 묻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말없이 꺼내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가끔은 생각한다. 그때 그 물건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그 위에 내려놓았던 감정들, 함께 울리고 흔들렸던 리듬들. 동방은 오늘도 그대로일까. 여전히 시끄럽고, 어질러져 있고, 그 속에 누군가의 웃음과 음악이 채워지고 있을까.

그때는 매 순간이 너무 급하고 바빠서, 지금처럼 오래 바라보진 못했다. 리허설은 언제나 아슬아슬했고, 장비는 늘 부족했으며, 우리 마음은 간혹 맞지 않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 시절을 떠올릴 때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다 쓴 줄 알았던 피크 하나, 누군가 건넨 캔 커피, 공연이 끝난 뒤 손에 남은 진동.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겐 가장 오래 남았다.



모든 공연은 끝이 있었고, 무대는 늘 다음 팀을 위해 비워졌지만, 스피커 위에 잠시 올려둔 손, 아무 말 없이 건넨 종이컵, 조용히 정리된 동방의 조명 아래서 마주 앉았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날의 함성은 사라졌지만, 작고 흔한 물건들 속에 우리는 아직도 살아 있었다.

그런 벅찬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피식 웃게 되는 기억이 있다. 맨 처음의 기억. 첫인상으로 떠올리는 그때 그 얼굴들. 대학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앤된 새내기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이겠구나 했었던 예측들은 이 따금 맞아떨어지기도 했으나, 대체로 터무니없이 틀려먹은 추론이었다.

당시의 우리는 모두 조심스러웠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그리고 '밴드'라는 조금은 낯선 어울림 속에서, 각자는 서로를 조심히 들여다보았다. 누군가는 조용했고, 누군가는 무표정했다. 그래서 괜스레 '말 없고 소극적 인 사람일 것 같다'는 인상이 쉽게 생겼고, 당연하다는 듯 서로를 그런 틀에 맞춰 기억하기 시작했다.

은서는 그랬다. 첫 인상은 말이 없고 부드러운 사람. 팀을 조율하기보다는 뒤에서 다정하게 웃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막상 함께 활동을 해보니, 누구 보다 뚜렷한 방향을 말했고, 스스로 나서기보다 '이건 이렇게 하자'고 정리 해주는 리더였다. 말수보다 결정력이 더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민찬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난다. 연습이 끝나갈 무렵, 다들 피곤해 말수가 줄었을 때였다. 누군가 어설프게 농담을 던졌고,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런데 민찬이 그 타이밍에 너무도 진지하게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라고 말해서, 모두가 순간 멍해졌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조용하고 무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묘하게 타이밍이 좋고, 엉뚱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후로 분위기가 굳을 때면 다들 민찬의 입만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재희를 기억하면 떠오르는 건 분위기다. 말수가 적고 웃는 얼굴이 많지 않아 처음엔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다. 그런데 한 번 연습 중에 의견이 엇갈리던 순간, 모두가 머뭇거리는 틈을 비집고 재희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생각보다 유연하고, 동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실루엣이 흐릿했던 존재가 그날 이후 또렷해졌다. 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지금도 그 이미지는 여전하다.

그런 인상은 비단 셋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티디에 함께했던 모두가, 처음의 낯설고 조심스러운 시선을 조금씩 벗어던지고, 서로에게 천천히 드러나며 친구가 되어갔다.



첫인상이라는 건 사실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 누가 먼저 다가왔는지, 누가 먼저 웃었는지, 누구의 리듬에 우리가 맞춰졌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처음엔 그 사람이 어땠는지보다는, 지금 우리 사이가 어떤지가 더 중요해졌다. 어색했던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정이 있다는 건 맞지만, 그 어색함이 우리를 계속 설명해줄 순 없었다.

그래서일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서로에 대한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틀림 덕분에 우리는 놀라고, 웃고, 가까워졌으니까. 그리고 그 어긋남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만큼 더 확신을 가지 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티디였다. 티디.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이 이름이 기억 속에서 흐릿해지는 날이 올까. 어쩌면 벌써부터 이름을 소리내 말하는 일이 어색해지고 있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가끔은, 아무 때도 아닌 순간에 떠오른다. 무심코 지나는 골목의 밴드 포스터라든가, 날이 풀린 캠퍼스 벤치 아래에 쌓인 먼지 같은 거. 혹은 익숙한 인트로가 훌러나오는 라디오 한 쪽에서. 그런 때면 그냥, 조용히 생각이 난다.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아마 잊지는 않은 거다.

그 시절엔 참 많은 연습을 했다. 늘 바빴고, 가끔은 마음이 잘 안 맞기도 했다. 큰소리는 없었지만, 서운함이 쌓인 날도 있었다. 그 모든 걸 지나고도 끝내 우리가 무대 위에 섰던 날이 있다. 관객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옆에 누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선명하다.

모두가 같은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을 거다. 누구는 여전히 서툴렀고, 누구는 잠시 멀찍이 물러서 있었고, 또 누구는 중심을 잡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 모든 차이가 하나의 리듬 안에 묶였고, 그때 우리는 분명히 팀이었다.

기억이라는 게 늘 뜨겁고 벅차야 할 필요는 없다. 지나가며 떠오르는 것만
으로도 괜찮다. 가끔은 오래된 노래를 들으며 문득 웃게 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는 티디다. 그리고 아마, 더는 이십대가 아니게 된 때에도 이십
대의 꿈을 기억할 것이다.